

오피니언

월/요/광/장

민경한



노모가 계시고 고등학교까지 다닌 고향 광주에서 9년 가량 변호사를 하다가 서울로 입성한 지 만 1년이 되었다. 나이 50이 되어 사업기반이 잡힌 고향을 떠나 환랑한 서울로 사무실을 이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내가 느끼는 서울로 옮긴 이유는 할 일과 기회가 많은 큰 무대에서 다양하고 의미 있는 사건들을 처리해 보고 싶었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과 연구의 기회, 문화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광주에서 향유해 보지 못한 문화생활에 대한 향수, 아이들 교육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다. 그러나 시골 변호사가 서울에서 생활하기는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다. 집값을 포함한 생활비는 살인적이다. 최근 영국의 유력한 경제 주간지에 따르면 세계 주요도시 생활비 순위가 서울은 11위로 뉴욕, LA보다 비싸다. 미국 컨설팅 회사 발표에 의하면 39개 항목을 기준으로 한 삶의 질은 89위다. 경험해보니 사실이였다. 목동에서 서초동까지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 얼마 전 대치동으로 이사했다. 광주의 48평 아파트

를 매도하였으나 대치동 38평 아파트 전세 보증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아이들 학원비는 광주보다 2~3배 비싸다. 나는 20년 동안 아파트 근처 동네 미장원에서 커트를 했는데 광주에서는 6천 원, 목동에서는 1만원, 대치동에서는 1만 4천300원(부가세 포함)이었다. 머리 한번 자르는데 부가세가 불고 1만4천300원이 라니 기절초풍할 노릇이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수 억원의 이익을 얻어 표정을 관리하며 떨어질까 전전긍긍이고, 아파트가 없는 사람은 내 집 마련이 힘들어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래서인지 10개 모임을 가본 7~8곳에서는 집값과 아이들 교육 문제가 화제에 오른다.

시골 변호사의 '서울 입성기'

나 중형 로펌이, 나머지 소수의 사건을 개인변호사나 소형 로펌이 나누어 갖는다. 광범한 개인변호사나 소형 로펌은 이렇게 딱 짜인 구조나 인적 네트워크를 뚫고 마케팅을 하여 고객을 확보하기가 쉬운 일 아니다. 감시가 어렵고 익명성이 있어서인지 사건 브로커도 많다. 광주에서는 지역이 좁고 변호사 수가 적어서인지 시야를 넓혀주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실성을 인정받고 지명도도 얻게 되어 어느 정도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휴일 자주 무등산에 올랐던 추억이 정

말 그라워진다. 집에서 가깝고 높지도 적당하고 코스도 다양하며 바위산이 아니어서 오르기 쉽다.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을 오르다보면 무등산이 정말 좋은 산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런 산에 가까이 교통도 복잡하고 바위가 많아 오르기도 힘들고 사람도 너무 많아 별로 즐거움을 못 느낀다. 그래도 서울에 올라와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 발레, 뮤지컬, 연극, 음악회 등 각종 공연 10여회, 스포츠 경기 등 광주에서 못 누렸던 문화적 향수를 맘껏 달래고 있다. 또한 민변 사법위원장, 법무부 검찰위원, 정책위원으로서 보람 있는 일도 하고 있다. 어른들의 생활이야 불편하지만 중·고생인 아이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서울의 문화를 접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소득이다. 광주가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이 좁고 학원, 자연, 혈연 등 온갖 연줄로 얽혀 있어 정세에 치우치고 합리적 사고가 부족하며 타인에 대한 혐담, 시기, 질투 등이 많고 시야가 좁은 것 등 부정적 요소도 있다. 그래도 삶의 질이 서울보다 훨씬 좋은 광주를 자주 찾아야겠다. 광주는 언젠가는 회귀해야 할 내 고향이다. <변호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삼성 가전산업 변화 지역경제 위축 없어야

삼성그룹 이견회 회장이 생활가전 사업에 대해 "한국에서는 할 만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말해 생활가전 주력업체인 삼성광주공장에 어떤 형식으로든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삼성광주 전자가 광주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이 회장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이 회장은 지난 9일 생활가전 사업의 전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에서 할 만한 사업은 아니다"며 "결국 개도국으로 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수년째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삼성전자의 생활가전 분야의 중대한 방향전환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수익이 적은 생활가전 일부 분야를 접고 다른 주력업종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삼성전자의 생활가전 사업의 변화가 광주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가전 제품의 52%가 수출용이다. 그런데 이 수출용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광주공장의 기능 축소는 불가피하며,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물론 삼성전자 측은 내수시장의 중요성 때문에 광주 공장은 현 골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로서는 생산 비용이 저렴한 해외 생산기지의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것으로 보여 광주공장의 역할 변화가 예상된다. 삼성광주전자는 연간 9천600억원의 생산유발 및 1만2천400여 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내고 있을 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삼성 가전사업의 변화가 지역경제를 위축하는 방향으로 전개해서는 안 된다. 광주시나 지역경제계는 이 회장의 발언진위와 후속대책을 파악해 지역경제가 불안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임시국회 '개점휴업' 정치권 각성하라

한나라당이 12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난 지 열새만이다. 하지만 열린 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불응키로 해 국회 공전사태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치권의 기싸움은 치열하다. 한나라당은 임시국회가 법률적 소집요건을 갖춘 만큼 국회를 무조건 열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민생법안과 사학법 연계 불가 방침 요구에는 사학법 처리를 합의해 놓고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역공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국회를 단독 소집한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이자 전형적인 책임전가용 전략이라며 2월 민생국회를 무력화해 놓고 사과나 반성없이 국회를 당리당략의 놀이터로 유린하려 한다고 성토했다. 통합신당모임과 민주당, 민주노동당도 임시국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자주 여는 것

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각 정당의 입장이 엇갈리는데 의사일정마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국회가 정상가동될 수는 없을 것이다. 문만 열어놓은 채 정치공방만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정쟁의 핵심은 사학법 재계정이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계정을 주력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 등 다른 민생법안과 연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의 합의사항이라 하지만 사학법 처리가 최우선 과제인지는 의문이다. 국회에는 주력법 등 부동산 관련법안과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사법개혁 관련법안 등 주요 민생법안이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있다. 정치권은 말로만 민생을 외칠 뿐 책임을 지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고 당리당략의 구태정치만 판을치고 있다. 대신이 다가올수록 합력투기는 기승을 부릴 것이다. 정치권은 언제까지 국민들을 짜증나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조 칼럼

조재건



우리 사회는 아직도 질서를 제대로 지키면 바보요, 지키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또 어쩌다 질서 위반으로 단속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게 되면 '재수가 없어 걸렸다'는 인식이 강하다. 사실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거나 남에게 먼저 양보하고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는 점에서 보면 이러한 인식이 터무니 없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질서라는 것이 강제적 약자권 부자권 가난한 사람이면 상관없이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양보와 배려를 통해

있고 눈치 빠르고 수단 좋은 사람이 이익을 누리라는 '악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문화라고 한다면 그들의 교통신화는 정치선에 먼저 도착해 일단 정자하고 좌우를 살피 주의를 하는 절차를 거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오랜 자동차 문화의 역사를 통해 만들어진 합리적 인 법칙이라는 생각이 들겠다. 물론 그러한 교통문화가 정착하기까지는 위반한 자에게 우리보다 더욱 엄한 처벌을 가하는 등의 여러 가지 제재 방법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조그마한 질서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교차로에서의 뒤엉킴, 사소한 접촉사고와 이로 인한 시비 등의 불편함을 생각한

작은 질서의 아름다움

만든 약속이라는 면에서 보면 위와 같은 인식은 옳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우리는 이러한 질서에 관한 인식의 편차를 매일 접하는 교통문화에서 극명하게 보게 된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다.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서게 됐다. 그곳에는 우리와 다르게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정지(STOP) 표시판이 서 있었는데 그곳을 통과하는 모든 운전자들이 무슨 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정지선 앞에 완전히 멈춰 섰다. 이어 좌우를 번갈아보면서 몇 초간 정지해 있다가 정지선에 먼저 도착한 차량이 순서대로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교차로에 도착하면 정지하지 않고 좌우를 살피며 슬금슬금 교차로를 빠져 나가고, 행여 다른 차가 끼어 들까봐 짙게 앞차를 뒤쫓아 가는 모습이 익숙해져 있는 이방인의 눈에는 이러한 교통문화가 아주 신선하긴 했지만, 대단히 어수룩하고 미련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우리 교통문화가 질서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보다 질서를 무시하고 힘

다면 약간의 양보를 통해 질서를 지킴으로써 그러한 불편의 소지를 없애고 모두가 편하고 여유롭게 운전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였다. 여기서 한가지 덧붙일 것은 그러한 조그마한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질서가 지켜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필요 이상의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질서위반자를 양산해 내겠다는 것에 다를 바 없다. 보행자가 잘 다니지 않는 한밤중에도 보행자 신호등을 켜지게 해 교통흐름을 끊는 것은 낭비적일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이다.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분규와 소란은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통상 거쳐야 하는 산고일 수도 있다. 하지만 더 큰 이익을 위해 작은 질서를 지키는 조그마한 양보와 배려를 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선물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고등법원 판사·공보관>

유명 연예인들 대출 광고 출연 신중했으면

목포와 순천을 오가며 의료 유통업을 하는 아버지가 갑자기 돈이 묶이고 장사가 잘 안돼 집안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 당장 돈이 필요한데 마땅히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고민하다 TV에서 하는 대출 광고를 접했다. 이른 시간 내에 필요한 돈을 빌려 쓰고 전화해서 갚을 수 있다고 해 금란 마유에 전화를 했다. 400만원을 의뢰했더니 대출 수수료로 23

만원에 연 이자율이 66%라고 했다. 400만원을 빌릴 경우 월 22만원의 이자를 내야 된다. 물론 개인에 따라 여러 조건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율이다. 유명 연예인들이 돈을 받고 광고에 출연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공인이라 하면 최소한 광고 내용을 한번쯤 알아본 뒤 출연할 수는 없을까. ▲이학성·광주시 광산구 양산동

기고

손중해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대체복무제는 현역복무를 충원하고 남은 인력을 활용하는 한편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시대 변화에 따라 도입취지가 퇴색됐고 대체복무 차 형평성 문제와 인력을 적체적소에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때문에 병역의 형평성 유지와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해 대체복무제의 전면 준비가 필요하게 됐고 정부는 지난 2월 대체복무제의 단계적 폐지와 사회복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제도 개선안을 마련, 발표했다. 그 골자는 행정과 경비분야의 공익요원 단계적 감축 후 2011년부터 배경

능한 사람에게 5급 처분(사실상 군복무 면제)을 내입으로써 국민에게 병역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더라도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는 한 난이도가 낮은 사회복무 분야에서 병역을 이행토록 해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이 대폭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증 질환자(6급)와 정신질환자 등 사회봉사 부적격자는 제외된다. 사회복무는 시장을 통해 공급이 어려운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하며 중증 장애우 수발 등 봉사를 기피하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우선 투입된다.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병무청으로서 정책 추진을 위한 실무준비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앞두고

을 중단하고 봉사·보호·공익요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전·경, 경비교도 등 전환복무와 산업기능요원도 단계적 감축 후 2012년부터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체복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신하는 것이 사회복무제도다. 사회복무제도는 사회활동 가능한 모든 병역의무자는 예외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되 현역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는 제도다. 잉여 병역자원을 국가발전에 필요한 사회적 인적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대체자원' 개념으로 이용되던 잉여 병역자원이 '필수자원'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복무시스템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무제도의 기본원칙은 예외없는 병역의무이행 체계 정립에 있다. 현행 병역처분 기준은 손가락장애·인공눈을 시술한 사람들 사회활동이 가

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선 '07년도 공익근무요원을 봉사분야에 대폭 확대 배정했고 사회봉사 이행을 위한 전직업 소양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나아가 사회복무자들에게 대한 사전 소양교육과 기초직무교육을 위한 교육준비, 이들에 대한 체계적 복무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복무여건이 양호한 일부 사회복무의 복무여건 강화 등 사회복무제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복무제 도입은 병역의무자 모두가 병역을 자발적·능동적으로 이행하는 선진 병역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복무서비스 공급 인프라 구축으로 더불어 사는 선진복지국가 실현을 앞당기게 될 것이며 병무청은 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주도적이며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스쿨존 교통사고 안줄어... 운전자 경각심 일깨워야

스쿨존 제도가 시행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율 1위의 불명예를 기록하며 교통사고가 나면 난리법석이고 시간이 지나면 머릿속에서 사라지는게 현실이다. 어느 부모나 자녀가 안전하게 아무런 사고없이 학교에 잘 다녀오길 바라지만 학교에 보내는데 생각지도 않은 상당수 어린이들이 학교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다면 어쩌마음놓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는가? 학교 주변 도로에 스쿨존이라는 간판과

졸무늬의 정비된 도로·교통경찰관·녹색여머니 등 구축은 다 갖춰졌다. 그러나 바로 어린이들을 직접 보호해줘야 할 차량 운전자가 올바르게 건전한 의식을 갖지 않는한 사고는 계속될수 밖에 없다. 스쿨존에 진입하면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지나가야 하지만 경찰관이 없는 곳에서는 완전 무풍지대나 마찬가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벌규준수 하나가 사고를 예방하고 그로 인해 교통선진국으로의 발돋움과 간접적인 경제회생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영민·광주시 서구 유촌동

無等鼓

2006년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은 미국 배우 필립 세이머 호프먼에게 돌아갔다. 그는 미국 작가 트루먼 카포티(1924~1984)의 삶에 그린 영화 '카포티'의 주연을 맡았다. 카포티는 영화 '타피에서 아침을'로 유명한 극작가이자, 동성애 취향과 이상한 말투로 세상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러나 영화 '카포티'가 한 사람의 삶을 다룬 전기성 영화는 아니다. 바로 카포티에게 '최초의 픽션 작가'라는 찬사를 안겨 준 한 살인사건과 이를 추적하는 과정을 담았기 때문이다. 1959년 11월 미국 캔자스주의 작은 마을에서 가족 4명이 살해 당했다. '뉴욕커'의 기자였던 카포티가 장기간의 취재와 범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출간한 책이 바로 '냉혈한(In cold blood)'. '냉혈한'은 저널리즘의 방법론과 소설의 작법을 동시에 적용시킨 최초의 작품으로 꼽힌다.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픽션(Faction)'의 원조다. 픽션은 잘 알려져 있듯 사실(Fact)과 허구(Fiction)의 합성어다. 출판평론가 이권우씨는 "픽션은 지식이란 쓴 약에 문화이란 당의정을 입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픽션은 '지식소설'로 불리기도 하지만 '문학의 쓰레기'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란 사실과 작가적 상상력이 동원된 허구가 교묘하게

겹친 픽션은 카포티 이후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 출판계에 대박을 터뜨린 '다빈치코드' '단테 클럽' 등은 모두 픽션류다. '불멸의 이순신' '해신' 등 TV 드라마나 '실미도' '왕의 남자' 등 영화도 마찬가지다. 드라마 '주몽'이 시청률 50%가 넘는 대히트 속에 종영됐다. 고대사를 다룬 '연개소문'과 '대조영' 등 픽션드라마도 바로 '냉혈한(In cold blood)', '냉혈한'은 저널리즘의 방법론과 소설의 작법을 동시에 적용시킨 최초의 작품으로 꼽힌다.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픽션(Faction)'의 원조다. /오주승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픽션' 드라마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